

주일의 말씀

정의로우신 하느님 그리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느님



김준년 베드로 신부
다산성당 주임

옛날 종교박해 때 관장이 순교자 루시아에게 “너희가 천주를 공경한다 하지만, 대체 천주를 누가 보았던 말이나?” 루시아는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말한다. “눈으로 보고서야 믿사오리까? 나라 일이 제대로 되어 감을 보면 나라님 계신 것을 어찌 알 수 없으리까?”

우리는 하느님을 직접 볼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밖에 달리 대답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순교자 루시아처럼 세상의 이치를 보고 하느님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고, 나아가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해도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정의로운 분이라고 믿는다. 그 하느님은 우리들의 잘못에 대하여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 오늘 복음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찾을 수가 있다.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은 갈릴래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그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 무리의 갈릴래아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그들의 죄 탓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신 셈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는 별로써 보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과연 하느님은 정의로우시고 무서우신 분이신가? 정의의 하느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어서 하나의 비유를 더 들어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를 심었는데 열매가 달리지 않자 베어 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포도밭 재배인이 이렇게 말한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포도밭 주인은 정의로우신 분이지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인내롭게 기다릴 줄 아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죄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고 생활의 개선을 기다리신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승승장구를 자랑한다. “보라! 나는 이렇게 내 멋대로 살아왔어도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도다! 그 누가 나의 길을 막을 것인가” 하고 소리친다. 그런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회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때를 맞았다.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웃의 불행을 보고 지탄을 하는 기쁨에 사로잡힌 이들은 자신을 바라 볼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느님이시지만 우리들은 유한하고 하느님의 기다림에도 끝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1코린 10, 12)라는 오늘 독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를 생각합시다. 정의로운 하느님을 생각할 때 죄를 피할 것이며 자비로우신 그분을 생각할 때 죄중에서도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루카 13,3

탈출 3,1-8ㄱ, 13-15 1코린10,1-6.10-12 루카 13,1-9



예수님께서 바위를 깎아 만든 돌무덤에 묻히셨습니다.(루카 23,53) 그러나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박해가 계속되면서 예수님의 무덤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져갔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황제의 칙령으로 우리 교회가 자유를 얻게 되자 다시 예수님 무덤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게 되었는데요. 특히 황제의 어머니 성녀 헬레나는 예수님 무덤을 찾는 데 아주 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헬레나 성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 무덤 성당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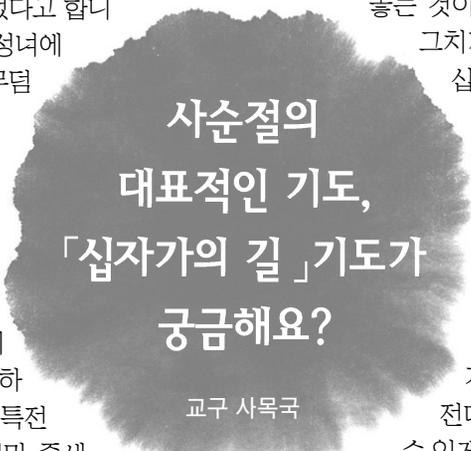
중세기에 예수님 무덤 성당은 참회하는 고행자들의 필수적인 순례지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순례해서 예수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은총의 체험이었고 또한 성지를 순례하고 온 이들은 전대사를 받는 특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세기에 예루살렘 성지순례,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아이고!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죠. 돈 많은 사람들, 신분 높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만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하고 전대사를 받는다면 그것은 공평치 못한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일부 수도회와 교회 단체들은 유럽 여러 도시에 예수님 무덤 성당을 본뜬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각이나 그림으로 예수님의 수난과 관련된 장소들을 표시했지요.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성당들이 있는 도시로 가서 예수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순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난한 농부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란치스코회 수사들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각 성당마다 예수님 수난의 길을 묵상할 수 있도록 성당 안에 나무 십자가로 수난과 관련된 주요한 지점(처)들을 표시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자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황청에 청원을 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기도하는 이들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참 아름답죠!)이렇게 해서 신자들은 예루살렘을 가지 않아도, 또 큰 도시에 가서 순례하지 않아도 가까운 성당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칠 수 있게 되었고 물론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731년 교황 클레멘스 12세는 십자가의 길을 오늘날처럼 14처로 고정하였고 합당한 방법으로 세운 14처가 있는 성당이나 경당, 순례지 등지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참 멋진 기도죠? 여러분 본당의 14처를 오늘 한번 큰 눈과 맘으로 따라가시며 기도해 보심이 어떨까요?(다음 주보에 계속...)



교구 사목국

조심 또 조심

박성규 엘리지오





영성의 향기

오늘의 미사

사순 제3주일

입당성가

123 십자가 지고 가시는

화답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봉헌성가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영성체송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차니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이요,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소서, 당신 집에 사는 이들!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파견성가

121 한 많은 슬픔에

:: 아래로 내려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아래로 내려가는 삶이라 했습니다. 이 삶이 정말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기심이나 야심을 없애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제 실속만 차리지 않고 남의 이익을 돌보는 삶, 이 삶입니다. 하지만 남을 이겨야 출세도, 진급도 할 수 있고 야심이 없는 사람은 진취성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세상 안에서 어떻게 포기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참 어려운 요구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예수의 삶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행길은 부활의 여정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느님께 서약을 드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부활의 삶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여정은 은총과 신비체험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단 둘이서만 우정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예수님과 사귀는 친구로 얻어진 그리스도께 대한 고귀한 지식과 충만한 기쁨입니다. 121

- 권가티리나수녀 -

짧은 글 깊은 생각

진가를 발휘할 때



유다 문학에 비누제조업자와 랍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비누제조업자가 랍비를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난 이제 유다교와는 끝났소. 당신은 종교가 세상에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종교가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잖소.”

랍비는 그에게 산책이나 하자며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신나게 뛰노는 아이들 곁을 지날 때 랍비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 아이들을 보면 비누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단정하겠구려.” 비누제조업자가 발끈해서 말했습니다. “농담하지 마시오, 비누란 사용할 때 그 효과를 내는 것이오.” 그러자 랍비가 받아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종교도 마찬가지로, 종교 역시 그 가르침과 원칙을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법이오.” 121

- 율겨은 글입니다. -

교구설정 100주년 기념 기도영성분과 로고공모전

- 내용: "은총의 100주년 1,3운동"
- 하느님과 화해, 이웃과의 화해, 자신과의 화해
- 시상: 최우수상 1명 상금 100만원 (마감: 17일(수))
- ※대구대교구 홈페이지(www.dgca.or.kr) 참조

발성법 시편성가 연구회(비:1만원)-Sr.김정선, 이병삼

• 일시: 3.7(일) 15:00, 장소: 가톨릭음악원(255-4847)

가톨릭대전기사 사도회 월례회

• 일시: 3.10(수) 14:00, 장소: 가톨릭교육원

떼제기도회

• 일시: 3.13(토) 20:00, 장소: 삼덕 젊은이성당

예비신학생 모임 개강 미사

• 일시: 3.21(일) 14:00, 장소: 남산동신학교 대성당

보다 더 나은 혼인생활을 위한 - ME주말초대

- 대구 27차: 3.26(금) 19:00~28(일) 18:00
-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473-5712
- ME주말에서는 더 깊은 사랑의 대화방법을 체험하게 됩니다.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부활(성3일)전례피정

- 일시: 4.1(목) 14:00~4(일) 13:00
- 장소: 성 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
- 참가비: 12만원, 문의: 054-971-0722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성소자 모임

- 일시: 3.14(일) 10:00~17:00, 내용: 열림 음악 피정
- 장소: 부산초량성서교육원 3층
- 문의: 016-606-2885

가르멜 수도회 수도생활 체험피정

- 일시: 3.19(금)~21(일), 회비: 3만원
- 장소: 마산 진동 가르멜 수도원
- 대상: 35세 이하의 미혼 남녀
- 신청: 이인섭 필립보네리 신부 010-3169-7416

전교가르멜수녀회 사순 대침묵 피정

- 일시: 3.26(금)~28(일), 장소: 부산 청원소
- 대상: 젊은 미혼여성, 피정비: 3만원
- 문의: 010-9962-7334(www.camis.org)

제주성이사들피정(미사,말씀,성지순례,자연피정)

- 일시: 3.15(월)-17(수), 3.21(일)-24(수), 4.6(화)-9(금)
4.11(일)-14(수), 4.19(일)-22(목), 4.25(일)-28(수)
- 장소: 제주 성이사들 목장 내
- 신청: 02-773-1455 성이사들 피정센터
- ※개인, 구역반장 및 단체 환영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매달 둘째 주(토) 14:00, 장소: 관덕정 성당
- 문의: 011-9319-1690, 성소상담 언제나 환영

계산성당 성경공부(마르코 복음의 수난과 부활)

- 개강: 3.9(화), 신청: 254-2306
- 중장년특기반: 목10:00-12:00/청년나눔기반: 화20:00-22:00

제4기 대구대교구 가톨릭어머니학교 개설

- 일시: 3.11(목) 10:00~16:30, 매주 목(6주간)
-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신청마감: 3.7(일)
- 입금계좌: 대구은행 164-13-144707 한혜숙
- 신청비: 1십만원, 선착순 42명(입금순서)
- 접수 및 문의: 054-275-0610

통합예술치료사 자격증과정모집

- 일시: 3월 9:30~12:30
- ORPT 대상관계부모교육 마음편 모집
- 일시: 3.15(월) 9:30~12:30
- 문의: 794-6022, 주최: 푸른평화예술치료상담센터

가톨릭문화관 교육생모집(476-6211)

- 어린이강좌: 미술교실, POP, 바이올린, 플룻
- 전문과정: 천연비누&천연화장품만들기, POP
- 성인강좌: 플루트, 바이올린, POP, 요가

ABC기초 영어반 모집

- 접수기간: 3.11(목) 13:00
- 문의: 새빛학교(교대역) 476-3100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 미 IVY리그 펜실바니아 대학 제휴
- 외국협력대학 유학 시 학점인정
- 이수 후 공립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 응시가능
- 전화: 526-0121(http://tesol.cu.ac.kr)

2010년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 살고자 하는 분
- 대상: 만53세 이하, 문의: 632-9800
- 봉헌미사: 3.20(토)14:00, 장소: 월배성당

3차 호소단식,침묵,복음서 통독피정

- 일시: 3.22(월)14:00~26(금)15:00(1인 33만원)
- 장소: 정하상교육회관 041-863-5690/010-9558-7112
- 주제: 몸살림, 마음살림을 위하여
- 지도: 김용태 · 김석태신부,김연희수녀 외2명

수도자와 함께 하는 순례의 길

- 일시: 4.19(월)~28(수) 9막10일
- 내용: 이집트, 이스라엘
- 주최: 아제시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영성연구소
- 문의: 권루치아 수녀 010-7131-3097

대구정신병원 간호사 모집

- 일시: 3.2(화)~11(목) 17:00, 문의: 630-3000

군중후원회에서 부활절을 맞아 군위문품을 보낼 예정이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 3.7(일)까지 (꼭 지켜주세요), 접수:본당사무실
- 대상: 신자자녀 현역사병(의경, 전경포함)
- ※훈련병, 교육병, 하사관, 장교 제외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1대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8일(월) 오후2시	성모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미사	3월 8일(월) 오전11시	신평성당
2대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8일(월) 오전11시30분	2대구구청-범어성당	포항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3월 8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3대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8일(월) 오전11시	3대구구청-월성성당	원로사제 월요 미사	3월 8일(월) 오전11시	성모당
			해외선교 후원회 월례미사	3월 11일(목) 오후2시	성모당

미성당 3대 64년 전통 다이아몬드 예물전문
 보석감정 무료서비스실,심플다이아몬드 컷팅 행사(가사정리용 받고요세)
 마더보석회 회원 국제보석검정사 박재현(비오) 629-9090, 011-541-5415
 앞산 순환도로 (구정북부) 미성당 (소백산) 앞산 내거리

성모아이한의원
 • 잦은감기(열, 비염, 천식, 중이염)
 • 틱, ADHD, 식욕부진, 성장
 • 난치성 아토피
 • 언어(발달)장애, 자폐
 대표원장 김성철(비오)
 지하철 2호선 성서공단역 8번 출구 ☎ 592-1275, 593-1275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석유
 전화 한 통화면 어느 곳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도우미 익스프레스
 포장이사, 사무이사, 일반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이연재 맥 의원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원장: 이연재(메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 방향 200m

효경요양보호사교육원
 (노인복지센터 운영)
 ◎ 교육생 모집 ◎
 • 국가자격증 무시험 자격취득
 • 신규반, 경력자반, 재직자(무료)교육반
 • 자격증반(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 교육비: 557-9057, 474-1577 ☎: 564-1577, 475-1577
 서비스 이용문의: 010-3153-9057

성가정을 위한 결혼 정보
성가정결혼상담소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474-0025, 476-9275
 가톨릭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지하철 입구

결혼정보회사
MJ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미혼, 민혼, 재혼)
 서울 - 고객센터 02)3141-3888
 회원상담 02)338-0788
 부산 - 고객센터 051)817-3888
 회원상담 051)807-6205
전국대표전화: 1566-6205
 http://mjms.co.kr (마리아요셉.com)